BR5918 인터넷 사용을 금하여 생산성을 올린 실례 15-10-18

요즈음 세상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나 개인은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 회사가 회사내에서 직원 끼리 인터넷 사용을 금하여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된 실례가 비즈니스 윜지에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에이토스 (ATOS)라는 정보기술 회사는 직원 수 90,000 명을 가진 대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직원들끼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개인당 일주일에 15-20 시간임에 착안했습니다. 즉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사용이 신속한 소통을 돕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토스 회사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사용할 인트라넷인 BlueKiwi를 사용하여 사내의 모든 연락과 사무처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즉 고객과의 소통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사내의 모든 소통은 인트라넷 소셜 넷트워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 이후 인터넷 사용이 70%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즉 사내 소셜 넷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직원 한 명당 6 개의 메시지만을 주거나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보 기술자가 아닌 저에게는 사내 소셜 넷트워크를 이용하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지는 모르지만 에이토스 사의 발표에 의하면 사내 소셜 넷트워크인 Bluekiwi를 시용한 이후 운영수익이 지난 4년 동안에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에이토스 사는 고객회사에게도 그 소셜넷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의 사내 소셜 넷트워크, 즉 Slack, HipChat, 및 Yammer 와 마찬가자로 BlueKiwi는 소통 그룹을 조직하여 서로의 문서와 비데오를 검토하여 즉석에서 논평과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이 보내는 문제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 2 시간 걸리던 일이 45분만에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라하여 과업 처리를 수직관계를 벗어나서 수평관계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인 한 사람이 하루에 주고 받는 e-mail이 112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관행을 정상화하기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에이토스 간부들은 솔선해서 사내 인트라넷트워크를 사용했더니 모든 직원이 다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에이토스 직원들은 사내 소셜넷트워크를 사용하면서 10,000개의 소통 그룹을 조직했고 모든 소통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E-Mail소통을 전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고 고객과의 소통에만 e-mail을 사용할 뿐 모든 사내의 소통은 사내의 소셜 넷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동포 기업에서도 사내에서 인트라넷 소셜넷트워크를 사용하여 이익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끝